

**말하고 행하는 방식은  
진화하며, 항상 오래  
된 것이면서 새로운  
것이고, 항상 거룩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에 단장님  
께서 보내신 사목 서한.

2025-10-16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2일에 우리는 오푸스 데이의 창립 기념일을 경축하였고, 6일에는 성 호세마리아의 시성식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이 두 날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푸스 데이에 대한 우리의 소명을 성찰하도록 도와주며, 오푸스 데이가 되고 교회에 봉사하며 오푸스 데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쁜 개인적 책임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장의 여러 단계(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를 거치는 동안 인간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듯이, 우리의 발전에도 진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핵심, 본질, 정신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지만, 말하고 행하는 방식은 진화하며, 항상 오래된 것이면서 새로운 것이고, 항상 거룩한 것입니다" (서한 27, 56항).

특히 개인 사도직에서 우리는 직업과 인간 제도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방향 지우려는 노력과 함께, 말하고 행하는 방식에 개인적 창의성과 주도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영적 생활과 사도직 생활의 규범과 관습에 충실하고자 노력합니다.

한편, "말하고 행하는 방식이 발전한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표현하신 것은 오푸스데이의 한 세기 동안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매우 많습니다. 동시에 정신이나 규범 및 가족 관습의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같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성에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들(무엇보다도 성체성사)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창립자로서 정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생

락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던 세부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사항들도 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작은 관습들도 가족 전통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일치의 또 다른 요소로서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일치이며, 기원과의 생생한 일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이를 고려하면서, 보편 교회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전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강이며, 기원이 항상 현존하는 살아있는 강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일반 알현, 2006년 4월 26일).

때때로 우리는 규범생활, 관습, 양성수단을 살아가면서 형식주의의 유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형식주의나 습

관화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묵시 21,5 참조).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최근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사랑은 무엇보다도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며,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Dilexite, 120항). 매일이 새로운 빛을 발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영성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예를 들어 생활 계획)에만 충실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누군가에게 충실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매우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 형제들과 온 세상에 충실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의 그 권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실하십시오, 내 영혼의 자녀들이여,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성입니다" (주님과의 대화, 79항). 오푸스데이는 우리 손 안에 있으며, 받은 유산으로서, 하느님의 은총(恩寵)과 기쁨

으로 결실을 맺고 전달해야 할 보물  
로서, 우리 개인의 한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른 외적 어려움 앞에서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이 결정적인 순간  
에 교황 성하의 인격과 의향에 일치  
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깊은 애정을 담아, 여러분의 아버지  
페르난도가 축복합니다.

로마, 2025년 10월 16일

.....